

近未來의 주거학

上 林 博 雄

(大阪市立大學 名譽教授 工學博士)

1. 序(자기 소개를 곁하여)

- 1) 나와 주거학과의 관련(1949년)과 일본에 있어서의 주거학의 인맥
- 2) 일본 구가정학에서의 이탈과 미국의 Home Economics에의 의문
- 3) 응용적 과학으로서의 Home Economics의 확립
(이와 같은 학문에의 사회적 요청을 직업 vocation으로서 받아들인다.)
- 4) 일본에 있어서 가정학의 최초로 시행된 명칭개혁 (생활과학)과 최초의 박사과정 대학원 창설 (1975년)
- 5) 나의 훈장-일본 有聯 부인클럽 전국 연합회로부터 제1회 Best Man 상을 수리(1985년)

2. 일본에 있어서의 生活者를 둘러싼 사회적 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 1) 경제성장 (1970년경~1992년) : 고임금, 고물가, 고지가, 무역흑자, 中度사회보중제도/경제의 발브(valve)파괴
- 2) 인구구성 : 고령화, 만혼화와 非婚化, 미망인이 많아짐 (寡産化)
- 3) 자연파괴와 지구오염 : 산업 공해, 폐기물처리, CO₂증가, 오존층 파괴
- 4) 사조 변화 : 정치불신, 사회적 도피, 자폐증적 개인주의

3. 고등 교육 제도의 改訂과 大學의 대응

- 1) 18세 인구의 감소(별지 그림 참조)와 대학의 생존 작전
- 2) 문부성 주관 대학 심의회(1987년~)의 설치와 답신 대응
(교육 연구의 고도화, 고등 교육의 개성화, 조직 활성화를 향한 법률, 省令의 改正)
- 3) 각 대학의 대응
(교양학부, 교육학부의 改變, 新學部, 新學科의 創設-그와 관련된 Key Words는 人間, 文化, 情報, 國際, 環境, 政策 등)
- 4) 元家政學系의 대응
(학부, 대학원 명칭으로 生活科學, 生活環境學, 生活文化學, 人間發達學, 生活機構學 등, 학과 명칭과 단기대학 전공명칭에 관해서는 생략함)

4. 近未來의 주거학

1) 주거학의 진부화와 상식화

일본에서는 1994년도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家庭科 교육을 生活科 교육으로 改訂하여, 남녀 모두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부분)으로 설치한다. 내용은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만약 주거학 부분이 장래에 강화 된다면 주거학은 진부화할 걱정이 있고, 별도로 TV 등의 정보가 많아지면 상식화 될 염려가 있다.

2) 주거학의 연구방법론적 보편화

- * 生活系 ; 生活 + 機構 + 美
- * 工科系 ; 機構 + 美 + 生活
- * 藝術系 ; 美 + 生活 + 機構

3) 住生活 연구의 深化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을 기초 과학으로 한 주생활의 해명 - 계층 분석, 주거관 분석 등을 병용)

4) 여가 생활의 내포, 고양

(학습, 관상, 창작, 사색 - 개인 및 가족의 문화적 주생활의 충족, 고양)

5) Community 생활의 거점적 환경 창조

6) 생활 환경의 질서 정비에의 운동과 정책 제안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 주택의 공적 공급의 강화, 집단 주택의 유지, 관리 시스템의 확립, 공공 교통기관의 정비 등)

高等教育の規模等の推移

